지기를 기름

기란 무엇인가?

일상생활 용어에 기氣라는 글자가 들어간 말이 참 많다. 감기感氣·용기勇氣·열기熱氣·살기殺氣·원기元氣 등 너무 많아 이루다 열거할 수 없다. 기는 한·중·일을 제외한 국가의 언어에는 없는 말이다. 그래서 번역되는 말도 없다. 굳이 말하면 에너지·힘·공기·흐름stream·숨·힘·물질 등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번역될 뿐이다. 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책 한권 이상의 지면이 필요하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를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기를 현대적으로 설명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과학과 관련된 문제이다. 쉽게 말해서 기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이다. 과학은 문학이나 예술과 달리 경험할 수 있는 대상만을 다루고, 그 마저도 동일한 보편적 개념을 가진 물질을 탐구한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나 미국

인이나 이집트인이나 또 어느 나라 누가 연구하든 간에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기를 가지고 이론을 세운 한의학이 서양 의학처럼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의학은 서양에서 대체 의학에 속한다.

이렇듯 기는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거기다가 탐구 대상으로서 통일된 개념도 없어서 기를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기가 들어있는 낱말 가운데 과학에 부합하는 것 가령 기압氣壓·기온氣溫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과학적 용어를 번역한 말들이고, 지기志氣와 같은 말은 현대의 개념에 맞게 설명하려면 부득불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가 물질이냐 정신이냐 하는 문제인데, 긴 설명을 필요로 한다. 결론만 간단히 말한다면 기는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을 넘나드는 존재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정신精神은 서양의 그것과 다른 개념으로 기와 관련되어 있다. 물질 또한 번역어인데, 공간을 점유하고 질량을 지닌 서양의 전통적 물질 개념에 들어맞는 동아시아의 용어는 질質이다. 질은 기의 찌꺼기이거나 기가 엉겨서 이루어진다. 반면 기는 생기生氣 또는 활물活物로 여겨 왔는데, 생명의 유지와 관련되고 운동성을 갖는다고 보면 되겠다. 곧 정기精氣니 원기元氣니 유행流行이니 승강乘降이니 하는 것이 모두 이와 관련된 용어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만물은 기가 운동하면서 생성한 것이고, 기가 흩어지면 만물도 소멸한다. 생물의 경우도 기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본서에서 기른다는 기는 정신적 측면으로서 지기志氣와 생체 에너지로서 혈기血氣이다. 지기의 현대적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또 제대로 기르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우산의 나무

지기는 국어사전에 '의지와 기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 풀이가 선생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지는 이 글을 다 읽어보아야 할 것 같다. 선생은 지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본마음을 기른다'는 양심養心부터 소개한다. 본마음은 다른 말로 양심良心이다.

선생은 맹자의 말을 빌려 "본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망을 줄이는 일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욕망이란 주희의 말처럼 사람에게는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욕망이 늘어나는데도 절제하지 않는다면 본마음을 잃지 않을 사람이 없다. 사람에게 욕망이 필요할지라도 넘쳐나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본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본마음을 잃는 것에 대한 비유가 『맹자』에 보인다.

> 우산牛山의 나무들이 예전에 참 아름다웠었는데, 큰 도시에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끼로 남벌하였다. 그러니 아름다울 수 있었겠는가? 비와

이슬이 내려서 싹이 돋아나 자라지 않아서도 아니다. 거기다가 소와 양을 몰고 와서 마구 뜯어먹게 해서 저와 같이 벌거숭이산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 벌거숭이산을 보고 그곳에는 본래부터 나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어찌 산의 본래 모습이겠는가?

사람에게도 어찌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사람이 매일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듯이 양심을 잃어버린다. 양심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더라도 하루 종일 나쁜 행동을 저질러서 그것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반복하면 양심도 거의 없어지게 되어 동물과 차이가 없게 된다. 사람들은 그가 동물과 큰 차이가 없게 된 것을 보고 원래 양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찌 사람의 본래 모습인가? 그러므로 양심이란 잘 기르면 자라나고 기르지 못하면 없어진다.

산에 본래부터 나무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본래부터 양심이 있었다고 맹자는 주장한다. 나무를 베어내듯 양심을 잃어버리니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양심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맹자가 말한 양심은 인간의 착한 본성이 잘 발휘되는 마음이다. 그가 성선설을 주장했듯이 양심도 그와 관련된 본마음이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 논란거리이다. 인간의 가치관이란 본능과 환경으로서 문화적 배경이 상호 작용하여 경험적으로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 때문이다. 이는 현대 학자들도 동의하지만 앞서 소개했던 최한기의 주장이가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양심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고, 인간에게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는 의지 또는 기능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악인도 누가 그에게 불

리거나 억울한 행위를 했을 때, '이 나쁜 놈아!'라고 반발하지 않던가? 물론 이런 의지도 생물학적 이해관계에 원초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동물 가운데도 누가 자기에게 싫은 행동을 하면 화를 내는 것이 그 증거이다.

어떻든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 양심은 그 안에서 보편성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양심을 기른다는 것은 성리학의 논리에서 엄밀히 말하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희는 "양심이란 인간 본래의 착한 마음이니, 곧 사랑과 정의[仁義]의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양심의 근거로서 형이상학적인 천리가 인성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현대인들이 얼마나 따르겠는지 모르겠지만, 가치관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관점에서도 양심 또한 설득력이 있다. 양심이 형성될 때 잘 북돋우어야지 그 싹을 자르지 말라는 교훈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인성을 배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맹자는 성리학이 태동하기 이전의 인물이므로 비록 양심을 인간의 본마음이라 봤을지라도, 그것과 관련해 그 잠재된 발달 가능성이 점차 자라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호연지기

기를 기른다고 할 때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련회에 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기른다고 하지 않던가? 선생도 기를 기르는 데 이 호연지기를 소개한다. 이것은 맹자와 그의 제자 공손추의 대화 가운데 등장한다.

공손추 : 선생님께서 잘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자 :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공손추 : 호연지기란 무엇입니까?
맹자 : 말하기 어렵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굳세니, 곧음으로 길러서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꽉 차게 된다. 호연지기는 의리와 도리에 짝하니, 그것들이 없으며 호연지기는 줄어든다. 이 호연지기는 의리가 모여서 생기는 것이니, 그것은 조금 있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호연지기는 줄어든다.

맹자가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 마치 야구나 수영이나 악기를 배우듯이 몸으로 익혀서 길러야 하니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령 야구처럼 방망이로 공을 친다고 하자. 아무리 이론적으로 어떤 각도로 어떤 자세로 치라고 하지만, 투수의 맘대로 던지는 공을 정확히 받아치기란 어렵다. 구질에 따라 몸으로 하나하나 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힘들다.

그가 말하기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연지기를 곧음으로 기른다는 것과 그것이 의리와 짝한다는 것과 의리가 모여서 생긴다고 하는데, 다 같은 말이다. 더구나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미심쩍으면 줄어들므로 인간의 심리와 관계된 무엇이기도 하다. 그에 대해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기 힘쓰되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고 또

그것을 잊지도 말라고 당부하였다.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하는 것은 조장助長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지 억지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의리나 도리와 함께 짝을 지어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호연지기란 '씩씩하고 바른 마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도덕적인 용기'이다. 그래서 이 호연지기는 옳은 일을 많이 해야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지, 억지로 꼼수를 부려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심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바람이다.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칭찬과 보상이 따르면, 점점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며 바르게 자라게 될 것이다. 반면 바람직한 행동을 억지로 유도하기 위해 실제보다 과한 칭찬과 보상을 주고 때로는 윽박지른다면, 용기는 위축되고 위선자로 자랄 가능성이 커진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기를 살린다고 하면서 되레 좋은 기를 죽이고 나쁜 기만 커지는 것은 이렇게 방법이 졸렬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좋은 기를 살리는 것이 바로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선생이 앞서 말한 본마음을 기르는 것과 호연지기와 같은 기를 기르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선생의 설명을 들어보자.

본마음을 기르는 것과 기를 기르는 것은 실로 한 가지 일이다. 양심이 날로 자라나고 그것을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어서, 마침내 본마음을 가리

고 있던 것을 모조리 다 없애 버리는 데에 이르면, 호연지기가 성대하게 흘러서 천지와 한 몸이 될 것이다. 죽고 사는 것과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비록 정해진 분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 할 도리를 다한다면 어찌 스스로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본마음을 기르나 호연지기를 기르나 결과는 같다는 뜻이다. 호연지기를 잘 기르면 천지에 꽉 찬다는 말을 천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기가 국어사전에 '의지와 기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한 풀이는 한자를 하나하나 푼 설명으로, 선생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선생이 지기를 기른다고 한 것은 '도덕적 본마음과 그 본마음을 실천할 도덕적 용기'를 키우는 것을 아울러 말했기 때문이다.

맹자는 정말로 자신의 말대로 호연지기를 잘 길렀나보다. 『맹자』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는 만나는 왕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했고 꿀리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대우로 초빙해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았다. 왕이라도 정치를 잘못하면 갈아 치울 수 있다는 혁명론과 부귀나 가난이나 위세나 폭력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대장부大丈夫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맹자』라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나 저술을 통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말로만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호연지기를 실제로 기르지 못한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해 마음에 미심

쩍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예수가 음행하는 중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일까?

필자도 여러 저술을 통해 입으로만 호연지기를 꽤 소개한 것 같은데, 스스로 반성해보면 아직도 호연지기를 기르지 못했다. 하늘을 우러러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삶이 온통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관여했던 집단에 있을 법한 부조리를 상습적으로 눈감아 주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철없이 저지른 크고 작은 실수와 미숙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미심쩍음으로 호연지기를 기르지 못해서, 정의를 가로막는 사회적인 부조리를 보고도 용기를 내어 바로잡는 데 앞장서지 못했다. 고작 한다는 게 내 한 몸만 깨끗해지려 하고, 남의 옳은 일을 지지하거나 뒤에서 응원하는 정도였다.

이런 까닭으로 실증적 경험도 없이 저술을 통해 호연지기를 떠들어 보았자 대나무 숲에서 혼자 외치는 소리라 메아리도 없다. 맹자가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관심을 갖고 길러 보려고 노력 중이다.